

아무 생각 없이 만든 尹 연하장



홍 경 한 역

시시일락

‘칠곡할매글꼴’이 화제다. 대통령 연하장에 등장해서다. 지난 2일 복수의 언론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아 공무원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며 서체로 해당 글꼴을 사용했다.

연하장에는 “76세 늦은 나이에 경북 칠곡군 한글 교실에서 글씨를 배우신 권안자 어르신인 서체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이 글꼴은 2020년 처음 나왔으며, 한컴과 MS오피스에도 탑재됐다.

‘칠곡할매글꼴’ 보도에 뒤덮여 금시에 잊혔지만 각계 인사들에게 발송한 대통령 신년 연하장 또한 도용·표절 논란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연하장 이미지가 상업용 사진·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셔터스톡(Shutterstock)에 등록된 것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다.

실제 ‘프림야우(primiaou)’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작가가 공개한 기존 일러스트와 연하장 이미지는 판박이에

가깝다. 성형수술, 부처, 소주 등의 몇몇 그림을 첨삭한 것을 제외하면 누가 봐도 같은 작가의 작품이다.

표절 논란에 대통령실은 “적법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연하장에 활용된 디자인 이미지는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를 형상화한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서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로부터 연하장 제작을 의뢰받은 업체가 작가 쪽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허락받은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들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높은 예술성을 지닌 한국 작가도 많은데 굳이 외국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구태여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 및 도시 이미지를 반복 제작해 팔아온 상업 작가의 것을 썼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성의도 없다. 한 나라의 대통령 부부가 보내는 연하장지곤 국경 철학이나 이미지 자체에 관한 정성 따위도 녹아 있지 않다.

대통령실은 표절 논란이 일자 “역대 대통령의 연하장을 다수 제작한 경험이 있는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보도 자료를 보면 마치 자체

적으로 ‘창작’ 한 것처럼 적어 놨다. 하지만 기존 이미지를 갖다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과는 거리가 멀다.

이미지의 차별성과 독창성 역시 현저히 낮다. 뷰티, 한옥, K팝, K무비, K드라마, 한복, 김치 등등, 이것저것 죄다 구겨 넣어 원본에 비해 오히려 조악하기까지 하다.

작가 이력 검증에도 소홀했다. 대통령 연하장 이미지를 그린 이스라엘 작가는 과거 일본 제국과 일본군이 사용하던 국기이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旭日旗)’를 다른 그림 곳곳에 새겼다. 주지하다시피 ‘욱일기’는 나치 독일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깃발과 같은 의미의 전범기(戰犯旗)다.

물론 유럽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일본이 전범국이고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것을 잘 모른다. 일본이 애써 강조해온 것처럼 ‘전통문양’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마저 그런 인식에 동조한 채 역사외식에 결합이 있는 작가의 그림을 사용할 이유는 없었다.

그룹에도 대통령실은 그런 작가가 그린 이미지를 정부는 돈까지 주고 구입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술평론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기지 수첩

김 대 환
(건설부동산부)

정부가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였고, 청약당첨 때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규제를 폐지했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대출·청약 등의 각종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졌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은 줄어들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는 확대됐다.

이번 정책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26번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해 급격한 집값 상승을 유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얻은 ‘규제는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란 교훈을 받아들인 윤석열정부의 이번 정책은 시의적절하다.

1·3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핵심 인물인 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지우기에 반발해 정책 포럼을 결성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란 주제로 여론조사 기관 ‘더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47.5%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했다. ‘성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1.8%에 불과했다.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42.0%가 ‘LTV 규제’를 꼽았다.

실제로 문재인정부에선 지난 2021년 9월과 11월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전 정권의 몰락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이끈 주역들이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뭉친 모습을 보면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나는 이유는 왜일까.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멈추기 위해선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초석은 규제 완화에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정부가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대출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임대차 3법 개정, 세금 개편 등 규제 완화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

/kd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1일 (음 12월 20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썩지 않으려면 물은 흘려 보내야. 48년생 결혼은 돌이 했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60년생 조상님 제사는 지극한 마음으로. 72년생 이별이 슬습하면서도 슬프다. 84년생 학습효과를 반복에서 오니 도전정신을 함양.



소

37년생 정답을 알아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49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61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매사에 자중하라. 73년생 자기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85년생 뜻밖의 횡재수가 있으니 로또를 사볼까.



호랑이

38년생 서예를 조금씩 알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50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풀린다. 62년생 확실한 의사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74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86년생 병이 왔으니 약도 주저하지 실망은 이르다.



토끼

39년생 나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지 마라. 51년생 회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63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쉬지 말고 노력. 75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 87년생 마음이 상쾌하니 일도 잘 풀리는 행운.



용

40년생 머느리에게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마라. 52년생 과대포장은 상대가 실망. 64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76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거리는 결국 성공으로 측정. 88년생 힘든 일은 자식의 도움으로 해결.



뱀

41년생 인색하다보니 만남에서 실수를 한다. 53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65년생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 77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89년생 뽕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말

42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모임을 자제. 54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66년생 머리가 좋다고 잘사는 것은 아닐 텐데. 78년생 성공한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도 해볼 만하다. 90년생 가진 돈을 체크하고 신중하게 지출을 해야.



양

43년생 머리는 하늘을 이듯 조상을 숭배. 55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67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79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91년생 점(占)은 숫자의 과학이니 미신이라는 말은 무지함.



원숭이

44년생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보자. 56년생 길 한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도록. 68년생 음식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시각적 맛도 탄생. 80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92년생 장수선무(長袖善舞)도 실력이다.



닭

45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이다. 57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69년생 주변을 원망하기보다는 일의 장에 이유를 찾아보자. 81년생 어항 속 물고기 처럼 변화가 없다. 93년생 진실은 밝혀려 들수록 때가 묻는다는 말이.



개

46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가려서 하라. 58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70년생 우물에서 송충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82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94년생 슬픔도 시간이 가면서 지나간다.



돼지

47년생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실행. 59년생 평온한 바다에서 한가하게 뱃놀이. 71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83년생 직장에서 기본 소식이 들려온다. 95년생 비판 불평을 피하며 다시 하려는 의지만으로도 가피를 이어받는다.

김상회의四季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유명한 일화이자 역사이다. 오랜 옛날 이스라엘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의 이름난 싸움꾼이자 장수인 골리앗을 무찌른다. 누구도 대적하기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상대로 결투를 자청하고 나선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쪼마 녀석이 겁도 없이 나선다면서 코웃음을 쳤다. 다윗은 시냇물에서 주운 차돌을 물매에 넣어 마치 고무줄 통을 쏘듯이 골리앗을 향해 쏘았다. 쏜살같이 날아간 차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똑바로 맞았다. 골리앗의 거대한 몸은 힘없이 쓰러졌다. 이에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기에 바빴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듯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 뒤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대가 맞설 때 ‘다윗과 골리앗’ 같다고 얘기한다.

아직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그러한 역사가 살짝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념이 든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여겼다. 오래 걸려도 일주일 안에 종지부가 날 것이라고 확신에 찬 예측들을 했다. 그런데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까지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피해도 만만치 않지만 러시아의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개전 직후 미국이 제안한 국외도피를 거부하며 “내전(도피용)탈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고 외친 젤렌스키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올라갔고 국민들은 결속했다. 반면 군사적 강국인 러시아의 푸틴은 체면을 구겼고 사면초가에 갇힌 것 같은 모양새다. 누구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길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도울 때 하늘이 돕지 않았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0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0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의 놀이터**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4			3		8
		2	4		7
	8				
				3	
5	6				2
			1		9
	1				2
8				9	4
			1	7	3

	1		6			
4	8			5	3	
				8		
8			6	5	7	
	7		9			
	5	9	1			
			2			3
					8	
						6

정답

5	8	1	9	7	6	2
7	1	6	9	2	8	3
1	2	9	7	6	8	3
6	9	8	2	9	1	8
2	1	6	8	7	8	9
8	7	9	8	1	2	6
8	9	7	9	1	2	6
1	6	1	8	7	9	2
9	8	2	1	8	6	1

9	1	2	1	8	9	7	6
7	1	8	9	6	9	1	8
9	8	6	7	1	2	8	9
2	7	8	1	8	1	6	9
8	9	9	2	7	6	1	8
1	6	1	9	9	8	7	2
8	9	9	8	1	7	2	1
6	2	1	8	9	1	9	8
1	8	7	6	2	9	8	1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